



이재성

에코뉴스 발행인 / 한국환경전문기자회장

##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대응해야할 때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이 아열대기후의 특성을 띠면서 말라리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제주도 바다의 생태계의 변화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에서도 대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 올해는 우리 체온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규모가 더 커지고 있는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를 강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산림분야, 해양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는 성큼 다가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를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도피할 것이 아니라 적응하면서 극복해야 할 환경으로 인식해야 할 때인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지구의 기후가 일정한 주기로 변화는 주기설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온난화가 원인이라는 시각이다. 특정세력에 의한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최근 100년간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가속화 된 것은 분명하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차원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어마어마하다.

지구온난화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사실 좀 막연하다. 이러한 사실은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98.9%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대응에서는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그냥 귀찮아서', '혼자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개인에게 당장 이득이 없고 힘만 들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정보가 부족해서' 등의 이유를 들었다.

사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업, 단체 등에서 너무도 많은 소리를 내고있지만 정말로 구체적이고 효과가 있을만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자신이 없다. 캠페인은 요란한데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전 국민이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캠페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요구하지만 또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생명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기애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며 이는 산업 전반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부각되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도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로 향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사용하지 않는 전등은 소등하고, 대기전력을 "0"으로 하는 등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에코라이프로 만드는 실천적 활동이 필요하다. 에코라이프는 비용이 좀더 들더라도,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지구를 위하여 자원순환 상품을 구입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물이나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은 기후변화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막대한 에너지와 자원을 소요하는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좀더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환경  
시각